

삼해탈 닦으면 마음과 일 '하나'

금강삼매경 ①

《금강삼매경》에서 눈에 띄는 선사상의 하나는 셋을 보존하고 하나를 지켜 여래선에 들어간다(存三守一)라는 말이다.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셋을 보존하고 하나를 지켜(存三守一) 여래선에 들면 선정(禪定)에 의하여 마음에 숨겨놓지 않는다.…… 셋을 보존한다는 것은 삼해탈(三解脱)을 보존하는 것이요, 하나를 지키는 것은 한 마음(一心)의 여(如)함을 지키는 말이다. 여래선에 든다는 것은 이(理)로써 심(心)에 관하여 이니 이와 같은 경지에 들면 곧 실체에 드는 것이다.…… 삼해탈이란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이고, 이치로 마음을 관찰한다(理觀心)는 것은 마음이 이치(理)와 같이 맑아서 마음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존삼은 삼해탈을 보존하는 것인데 삼해탈을 잘 닦으면 관(觀)에서 나와 일에 종사하더라도 관의 힘이 아직 남아 있어 나와 남의 상을 취하지 않고 호오(好惡)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서 입(入)과 출(出)을 함께 잊어버려 마음과 일이 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지관(止觀)과의 관계에서 보면 관(觀)에 해당한다. 수일(守一)은 수일심(守一心)인데 입관시(入觀時)에는 고요히 일어(一如)의 경지를 지키고 관(觀)에서 나왔을 때

글쓴이



최유진 (경남대 인문학부 교수)

도 일미지심(一味之心)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수일(守一)이라 한다. 수일은 한결같다는 뜻의 일(一)이라 할 수 있다. 지관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止)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래선에 든다는 것은 이(理)를 관찰하는 삼매에 의해 심(心)이



33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섯 '길' 안내 守一사상은 중국선종과 관계 깊어

리(理)와 하나가 되는 삼매를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존삼과 수일에 의해 여래선에 들어가므로 지관(止觀)으로 말하면 지와 관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여래선이요, 이 중에서 수일(守一)의 사상은 특히 선종의 4조 도신(道信)의 수일(守一) 및 5조 홍인(弘忍)의 수심(守心) 사상과의 연관성을 말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상호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종파로서의 선종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는 논의로 하더라도 《금강삼매경》은 선사상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 경전 전체가 선사상의 중요한 원천이 됨은 원효의 해설에서도 알 수 있다. 원효가 실천의 입장에서 이 경전을 풀이하는 것을 보고 《금강삼매경》에 대한 해설을 마쳐도 좋겠다. 원효는 이 경전의 핵심을 일미관행(一味觀行)으로 풀이한다. 즉 본론의 6품(無相法, 無生行, 本覺利, 入實際, 眞性空, 如來藏)의 여섯 문으로 관과 행이 두루 포괄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다. “무릇 모든 망상이 무한한 과거로부터 유전하게 된 것은 단지 형상에 집착하여 분별해 온 습관적 집착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흐름을 거슬러 근원에 돌아가고자 하면 먼저 모든 객관적 형상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하여 이를 부수어야만 하므로 처음에 무상법(無相法)을 관해야 함을 밝힌다. 비록 모든 형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만약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으면, 주관적 생각이 발생하여 본각(本覺)에 계합(契合)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 생각을 없애 할 필요가 있으므로 둘째로 무생행(無生行)을 나타낸다. 모든 일을 행함에 주관적 생각이 집착됨이 없으며, 문득 본각에 계합하게 되니, 이에 의하여 사물을 교화하여 본각의 이로움을 알게 하기 때문에 셋째로 본각리문(本覺利門)을 밝힌다. 만약 본각에 의지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중생은 곧 허망함에서 실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넷째로 실제에 들어감(入實際)을 밝힌다. 안으로는 형상에 집착함이 없고, 주관적 생각에 얽매이지도 않으며, 밖으로는 교화하여 본각의 이로움으로써 실제에 들어가니 이와 같은 두 가지 이로움으로써 만 가지 행이 다 갖추어지게 되어, 더불어 참된 성품으로 뛰어나게 되며 모두 진정한 자유에 순조로이 되므로 다섯째로 진성공(眞性空)을 밝힌다. 이 참된 성품에 의해서 만 가지 행이 구비되어 여래장(如來藏) 일미의 근원(一味之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섯째로 여래장을 나타낸다. 이미 마음의 근원에 들어오면, 곧 여자로 지어 아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길을 실하여 대승을 다 포섭한다.”

태국 니시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중도 ②

우리는 고립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죽는 것 등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중도의 미덕은 우리에게 고독, 행복,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 사이에서도 마음을 챙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유영하며 비로 세우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보는 대상은 달라진다. 거리를 걷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음식점이다. 길가의 화려한 구두가게는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의 흥미와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중도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방편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몸을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몸의 무상성과 부정(不淨)한 측면을 보아야 한다.

마하 부아 스님은 제자들에게 명상을 가르친 후 항상 이제 네 것으로 만들어라고 말했다. 우리는 원하는 것에 집착하듯이 익숙하지 않은 방법과 규칙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맛있는 음료, 익숙한 여행 등에 기대하던 변화만을 가지려고 한다. 이때 감정에 꼬달리지 않는 중도관이 필요하다.

또 마하 부아 스님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 수행을 할 때, 사리를 존자가 수행자들에게 육체적 고립과 정신적 고립 그리고 번뇌와 유혹으로부터 고립을 권고한 이유를 알게될 것이라고

감정에 꼬달리지 말라

두려움 갖지 말고 내면 깊이 관하면
집착·습관·공포·고독 등을 볼수 있다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곳을 찾아가 보지만 좀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기 두렵기 때문이다. 만약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마음과 몸이 변화를 겪고 고독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 평온이 오든 안오든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 수행을 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활용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할까, 평온을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내면을 깊이 관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마음의 집착, 습관, 공포 등 무엇이든 볼 수 있다기 때문이다.

중도는 두려운 고독에서 깊은 통찰력을 얻고 슬픈 감정들에게 영향을 받은 마음과 몸의 변화를 보고 다스리는 것이다. 또 유쾌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지만, 그것도 유익한 경험으로 돌릴 수 있고 또 감정들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편도 가르친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순환한다. 우리의 희망과 노여움을 품어주고 편안함을 찾아주기도 하고, 아주 빠른 일과를 보내는 마음과 같이 소용돌이 치고 미워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

중도는 아주 단순한 과정에서 얻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고, 알고, 결코, 집착하는 데서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 때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복잡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금하다. 그래서 행복하든지, 고통스럽든지, 번뇌에 빠지든지, 모두 극단을 간다. 하지만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은 깊은 지혜를 얻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중도는 인내의 여정에서 생겨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확고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번뇌로 헤매고 있는지 한번쯤 자문해야 할 것이다. 오종국 기자(gobaou@buddhapia.com)

과학 산책

기계론적 사고

원자와 아원자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던 고전 물리학자들은 이들 세계를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양자역학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양자역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동안 이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기본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이기에 상당한 저항이 일어났다.

이는 17세기에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양 과학과 사상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데카르트와 뉴턴적 사고에 깊이 사로잡힌 과학자들에게 이원론적,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통합적, 전체적인 사고를 강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인간을 전체적 조체라기 보다는 합리적 마음으로 여기게 했다. 그 결과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광범하게 되었다. 현대물리학과 프랑슈아상외의 저자인 프리초프 카프라에 의하면 이러한 정신과 물질 사이의 분리는 우주를 분리된

각체로 구성된 기계조직으로 보고, 분리된 객체는 다시 기본적으로 인 구성체로 환원되며, 이들 구성체의 성질과 상호 작용이 모든 자연 현상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우주관으로 유도하였다. 이 분리의 결과, 세계는 인간 관찰자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계적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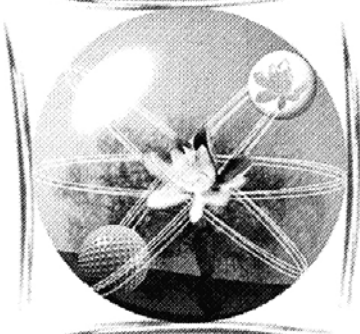
물체의 운동 정확한 예측 가능 원자세계 설명못해 양자역학 받아들여

적으로 믿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연의 객관적 기술이 과학의 이상이 된 것이다. 이런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사고를 완성시킨 것은 뉴턴이었다. 뉴턴은 자신이 발명한 수학 도구를 사용하여 신의 개입 없이 천체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 17세기 과학의 기념비적 업적인 뉴턴 물리학은 일관성 있는 수학적 세계관을 수립하였으며, 이 이론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견고한 기초가 되었다. 18~19세기에 들어 뉴턴의 이론은 유성, 달, 행성 등의 운동을 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수의 흐름 및 중력과 관련된 여러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대단한 성공으로 인간은 곧 모든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뉴턴 역학은 우리의 눈으로 관찰되어지는 물체들의 움직임이 전체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를 기계적, 수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하늘은 신비스러움을 잃고 신이 자연에 대해 누리던 지위는 자연법칙으로 대체되었고 신은 우리로부터 한걸음 더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열렬한 종교가이며 비전(秘傳)적 신비주의에도 상당한 지식이 있던 뉴턴 자신은 자신이 발견한 법칙에 무언가의 오류가 있을 것이라 믿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의 나머지 삶을 바쳤다. 그가 고민한 것은 그가 발견한 법칙은 성공적으로 신의 존재를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법칙에서 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자신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어쩌든 뉴턴의 법칙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여 물체들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사람들은 이 방식이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그 물체를 관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관찰자)가 관찰 대상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서로 관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들과 그들의 운동, 따라서 이 방법론은 이원론적 사고와 기계론적 사고를 조장했다. 뉴턴은 신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주관성(관찰의 주제)마저도 제거해 버린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처럼 성공을 거두던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사고와 뉴턴 역학은 원자와 아원자 세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20세기 들어 그 지위를 양자역학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다. 조원희(논사전략정보실장)

제 2 회 창작 찬불가 공모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통하여 불교음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포교의 일원시업으로 창작찬불가의 의욕과 불교음악인의 발굴기회를 갖고 민족정서 및 불교정서에 맞는 수준 높은 찬불가 발굴을 도모하고자 순수찬불가와 대중가요풍의 찬불가를 대상으로 제2회 창작찬불가 공모전을 개최함.

공모요강

1. 공모부문: (1)합창곡(5분 내, 외. 혼성 4중창) (2)중창곡(5분 내, 외. 여성3부) (3)독창곡(5분 내, 외. 순수 및 대중가요) (대중가요-녹음테이프 제출, 반주는 기타 또는 피아노 반주)
2. 응모자격: 기성 및 신인으로 만 18세 이상 불교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
3. 신청서 교부: 1999년 11월 20일 ~ 1999년 12월 24일 (조계종 총무원)
4. 응모기간: (1)1999년 12월 1일 ~ 1999년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층 문화부
5. 심사발표: 1999년 12월 30일 (입상곡에 한하여 개별정보 및 불교신문에 공고함)
6. 운영 및 심사위원: 총무원 운영실무자 및 불교음악의 권위자로 구성함.
7. 시상내역: (1)대상 1인(상금 500만원, 상패) (2)금상 1인(상금 300만원, 상패) (3)은상 2인(상금 100만원, 상패) (4)동상 3인(상금 50만원, 상패) (5)장려상 4명(상패)
8. 응모요령: (1)인 부분별 1곡씩 3곡까지 응모 가능함 (2)모든 응모작품은 피아노 반주를 원칙으로 함 (3)작품은 필히 먹으로 정사한 악보 1통(원본)과 복사본 5통을 제출할 것 (4)작품 속에는 작사, 작곡자의 성명을 비롯한 악보 외의 표시는 하지 말 것 (5)응모신청서(본 종단 소정양식) 1부를 제출할 것 (6)신청서 제출시 작곡자의 이력서 1통과 사진 3장, 가사 및 곡해설 (100자 내외)을 첨부할 것 (7)응모신청금은 1곡당 30,000원
9. 참고사항: (1)입상자 또는 작품이 결격사유가 발생시 시상 후에도 입상자격을 취소하고, 시상금 및 상장을 회수하며, 향후 모든 종단 행사에 참여 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2)기타 문의사항은 창작찬불가 공모전 주최운영위원회로 할 것.

불기 2543(99)년 9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주최: 운영위원회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장실 2층 문화부
전화 02-739-1830, 02-725-1674 팩스 02)722-2606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청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舍內典과 外典,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數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艱難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正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구임.

총판대리점 범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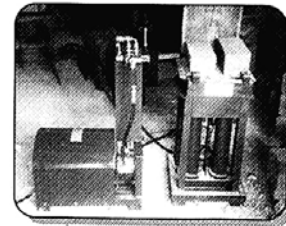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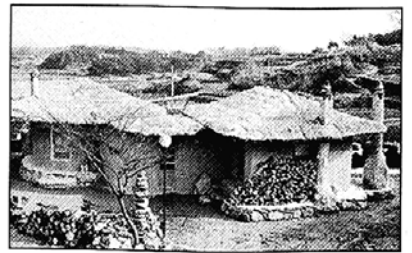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왕토 관련 전문 회사
왕토 마을 예매

- 왕토 주택 도급시공 ○ 도급 현장 출장감독
- 왕토집 짓기교육 3월 중순이후 연중 2~3회
- 왕토출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왕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